

문학

문서

III

05 수능 문학이란

| 구분 | 학습 방법 |
|------------|--|
| 문학의 본질 |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
| 문학의 수용과 생산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
| |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
| |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
| |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
| |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
| 문학에 대한 태도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
| |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
| |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

해당 [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의 19페이지에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수능 국어의 문학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1. 문학의 기초

문학의 본질에 관한 문장을 분석하면

1. 문학에는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 있으며
2. 해당 기능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효용과 가치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공감]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수양]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이는 문학이 한 개인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며

주관적인 자기 해석이 아닌, 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해석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능 문학을 시작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문학에서 글쓴이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글쓴이는 이를 절대로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마치 그 ‘의도’를 이야기로 포장하여 선물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의도’를 불분명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야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포장된 선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선물의 내용물을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의도를 포장하고 있는 이야기 뭉텅이를 보면서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상상한다.

이와 같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 하는 것이 글쓴이의 목적이다.

그래서 문학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파악을 위해 긍정-부정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2. 이야기의 형태: 내용적 문제

우리가 굳이 국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분석하지 않더라도 정말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눈을 떼지 않고 본다. 아니면 진짜 망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볼 때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린다. 어떤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분명 비평을 배우지 않았어도 재미있음과 재미없음, 좋은 작품과 별로인 작품을 구분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누군가의 손에서 재구성되어 작품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내용’ 혹은 ‘사건’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도 이런 내용적인 것들, 우리가 겪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로 만든다.

3. 이야기의 형태: 형식적 문제

살아가다가 문득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도저히 깨지 않는다. 혹은 하루가 좋게 흘러갈 때는 그 날 아침잠이 확실히 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문득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쟁영화에서 여친 사진을 보면서 ‘난 집에 돌아가면 결혼할거야’를 말하는 친구들이 집에 못 돌아간다든지, 밝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면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작은 사건들이 모여야 한다든지... 이처럼 패턴이 존재하고, 문학에서는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한다.

수능 문학에서도 이 패턴에 관한 문제를 낸다.

REMARK 1 문학 문제를 풀 때,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를 구분하자.

어느 성격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지며
해당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를 구분해야만 한다.

22 ~ 27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납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곧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06

시의 내용적 문제

1. 시에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시에도 이야기가 있다.

소설에서도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인물(혹은 대상)을 쫓아가야 한다.

대상들을 찾아서, 대상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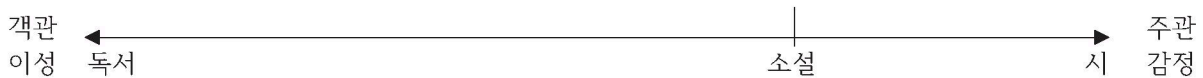
이 때 문학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함몰되지 말아야 하며,

'의도'를 파악을 위해 긍정-부정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접 눈으로 '이야기'를 확인해야 한다.

2. <보기>를 활용한 시의 해석

시는 가장 감정적인 문학 형식이다.



시의 경우, 감정에 몰빵한 문학형식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기>를 구조화하여 논리적 상황을 설정 한 수,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 대상, 주제, 의미 등

한편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와 '의도'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고,

<보기>에서 주어진 근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32 ~ 34

<보기>가 없을 때의 시의 해석

들어가기 전

(가)

○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땡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Keyword 1

○ 향아

△ 나 (드러나지 않음)

‘나’는 ‘향’에게 말하고 있다. 향이는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향이에게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다.

일반적으로 옛날은 ‘시간 개념’이지만
‘~로 돌아간다’는 말을 생각하면,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수럭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문장을 해석해보면,

‘수수럭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을 수식하고 있으며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은 ‘석양’을 수식하고 있다.

‘석양’은 시간개념으로 ‘옛날’의 시간개념을 통해 이어진다. 즉, ‘옛날’에 대해 과거에 봤던 웃음과 얼굴이 보였던 ‘석양’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향이에게 내 눈동자를 보라고 말하며
-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미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 젊을 때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한편으로 지금은 미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긴, 병인이 든 상황이다.

병든 '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나일 수도 있고, 향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 우리 얼굴에 맞지 않는 발돋는 흥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리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
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나는 향이와 그 미개지에, 풍속, 마음밭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 야이기를 정리하면,
병든 '나'는 '향'에게 병들지 않았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REMARK 1 이야기에는 '대상' 존재하며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시의 '이야기'는 소설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대상이 있으며, 대상은 무언가와 '상호작용'한다.
물론 '시'는 이야기에 직접 말하는 화자가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드러나지 않는 '화자' 역시 대상이며, 이는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과 마찬가지로, 대상들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REMARK 2 주어가 생략된 표현에서 꼭 주어를 확인하자
시에서 주어가 생략된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화자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우선적으로 화자를 주어로 고려하시고, 혹시 의미가 이상하다면 다른 대상을 주어로
사용해야 한다.

REMARK 3 ○ 와 △ 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로 '긍정-부정'만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 와 △ 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 도형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1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2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3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①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Keyword 2

- 그
-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
- 부주의한 아이들
- 유리를 깬 아이
- (유리를 까지 않은) 다른 아이들

‘그’가 사는 집의 담장은 유리로 되어 있다. 당연히 유리 덕에 담장주변은 빛났다.
 어느 날, 부주의한 아이들이 놀다가, 반사된 햇빛 때문에 유리담장을 깬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른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평소처럼 놀았다.

또 어느 날, 어떤 한 아이가 송판으로 담장을 쌓자고 했지만 이내 쫓겨났고, 유리담장은 매일 깨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유리담장을 치웠다. 유리담장을 치운 골목은 빛을 어두워졌고, 아이들은 더 이상 놀지
 않고, 일렬로 줄을 선 채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벽돌을 나르는 것인가... 혹시 담장?)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 유리담장을 설치했던 것 같다.

32 ~ 34

<보기>가 있을 때의 시의 해석

들어가기 전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Keyword 2 (가)와 (나)의 공통점 :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

Keyword 3 부정적 현실과 회복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

/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

Keyword 4 수단과 목적

수단 : 환영

목적 : 1.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킴 2.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

(가)와 (나)의 공통점: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

(가)의 해석

-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

: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김,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허물어질까',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

: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침,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고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림,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맨발을 벗고 콩바심,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을 춤, '마음밭'

: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나)의 해석

- 환영(幻影) : 유리 담장

- 권력 : '그'

-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됨,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

: '얘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밭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들어가기 전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때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먼저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을 바탕을 두’는 것은 전통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터전이 확장되는 것’과 다르다. 두 번째로 순수성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순수성은 손상된 것이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보기>와 동일한 표현이 될 수 없다.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때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군.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②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나)에서 아이들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이들을 기만했다.
③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④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⑤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③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⑤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지문 마무리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때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퐁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카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크'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크'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먼저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을 바탕을 두'는 것은 전통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터전이 확장되는 것'과 다르다. 두 번째로 순수성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순수성은 손상된 것이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보기>와 동일한 표현이 될 수 없다.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밭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07

소설의 내용적 문제

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물론 인물의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REMARK 1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인물의 행동은 중요사건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의도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2.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은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

고전소설이 적힌 시대에는 한 개인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은 많다.

별호(別號), 명호(名號), 외호(外號)

계급(階級)과 입신양명에 따른 관직(官職)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표현들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지금의 시대에서 이같은 표현들은 정말 생소하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물의 이름들을 확인해야 한다.

REMARK 2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자.

10 ~ 13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별적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바라……. 증중 따근히게 데와. 날두 산산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베풀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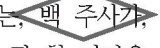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C]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찹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립한테 거만히
[D]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E]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크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뒀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풀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잡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군 헌병.

Keyword 1

 방삼복

 서 주사

 방삼복의 아내

 백 주사

 백 주사의 아들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둔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둔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구, 살 놈이 죽구 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중 따근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28번의 ‘㉡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28번의 ‘㉢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㉔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㉕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28번의 ‘㉔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방삼복이 인맥에 대해서 나불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나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백주사’이며, 동상자는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8번의 ‘㉕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30번의 ‘㉔ ㉕: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30번의 ‘㉔ ㉕: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군 헌병.

28번의 '㉠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백주사이며, 방삼복은 이 말을 듣고 있다. 대상을 바꿈으로서 오답을 구성했다.

30번의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주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고향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고향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30번의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30번의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REMARK 1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문제에서
대상, 다시 말해 인물을 바꾸면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예시: 28번의 1번 선지, 28번의 4번 선지)

혹은 인물과 연결된 사건이나 속성을 바꾸어서 오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시: 30번의 3번 선지)

이와 같은, 오답을 예방하는 방법은
인물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여
소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데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구, 살 놈이 죽구 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중 따근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B]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D]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E]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모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훗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군 헌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 방삼복이 인맥에 대해서 나불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나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백주사’이며, 동상자는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게~~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주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고향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고향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18 ~ 2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가기 전

21번 보기 분석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Keyword 2 '수단'과 '목적'

: '인물의 욕망을 실현'과 '음모를 실행함'

: '㉠환상적 요소가 사용,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함'과 '음모의 진행'

Keyword 3 음모의 실행과 방해

-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REMARK 1 소설은 감정적인 문학 형식이다.

객관 이성 독서 ←—————|————→ 주관 시 감정

소설은 감정이 섞인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논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기>를 제시하고, 논리적 상황을 설정한다.
그래서 <보기>가 있다면, 이를 읽고 지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고, 주어진 <보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흥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외남매 은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굳이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뻐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꿰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Keyword 1

○ 셋째 부인 여씨

△ 둘째 부인 석씨

□ 상서의 서모, 석파

◇ 상서

⬠ 양부인

⬡ 첫째 부인 화씨

▭ 시녀 계성

⊕ 친누나 소씨

▴ 의남매 윤씨

⬡ 여씨 심복 미양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백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해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전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뇨?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19번의 ‘㉠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19번의 ‘㉢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 ㉡을 여씨가 말하기 전에, 상서는 청운당에 가서 여씨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녹운당에서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듣는 모습을 보았다. 상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여씨는 운취각에 갔다고 상서에 게 거짓말을 했다.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전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흥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19번의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21번의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21번의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21번의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악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19번의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느니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뻐던 일들을
날날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퉁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19번의 ‘㉔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1번의 ‘㉔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
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21번의 ‘㉔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상서는 여씨가 음모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집안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소씨와 윤씨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상서는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여씨를 내치는 과정에서 상서와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REMARK 2 대사나 행동이 누가 했는지 헷갈린다면, 표시해서 혼동을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글이 길어지면서, 누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착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착각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게 한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소에 표시를 하면서 인물들을 구분하고,

특정 인물이 한 행동과 대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해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전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뇨?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느니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뻐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꿰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최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상서는 여씨가 음모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집안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소씨와 윤씨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상서는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여씨를 내치는 과정에서 상서와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